

OCI, 염화칼슘 공급부족 “비명...”

중부지방 중심으로 제설용 급증 ... 재고 모자라 추가물량 생산 나서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설로 염화칼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내 유일의 염화칼슘 생산기업 OCI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OCI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염산과 석회석을 반응시켜 용설용(제설용) 염화칼슘을 생산하고 있다.

OCI는 2009년 10월 조달청의 염화칼슘 구매 입찰에 참가해 12월까지 계약 물량인 1만8000톤의 염화칼슘 공급을 모두 마치고 제설용 추가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설 새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염화칼슘은 총 7만톤 가량으로, OCI 제품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나머지 75%(5만2000톤)는 중국산이 차지했다.

OCI 역시 중국으로부터 염화칼슘 1만5000톤을 수입해 조달청 입찰에 참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 뿌려지는 염화칼슘의 50% 가량을 OCI가 공급하는 셈이다.

최근 들어 전통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등 제설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자체의 염화칼슘 구입 규모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이다.

OCI에 따르면, 2006년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관급 염화칼슘 계약 물량은 6만5000톤 수준이었는데 2009년에는 8만2000톤 가량으로 25%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0년 1월4일 서울 25.8cm, 인천 22.3cm의 기록적인 폭설로 상황이 심상치 않자 조달청은 염화칼슘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지만 OCI는 “재고 부족으로 2월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조달청에 회신했으며, 현재 인천공장은 재고가 거의 바닥 나 10일치 생산량(1300톤)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염화칼슘 생산능력과 원자재 수급량이 한정돼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의 염화칼슘을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를 함부로 출고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김기철 OCI 인천공장 품질관리팀장은 “눈이 많이 올 때는 지자체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직접 염화칼슘을 구입하거나 다른 지방의 OCI 공장에서 염화칼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최소한의 재고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06>